무명주지, 여래 지혜만으로 끊을 수 있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⑱ 상응과 불상응

"세존이시여, 일어난 번뇌는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응하는 것이지만, 세존이시여, 마음에 서로 응하지않는[心不相應] 것은 시작이 없는 것이 무명주지(無明住地)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여래의 보리 지혜로 끊을 수 있는 항하의 모래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로 유지되는 것이며, 세워진 것입니다. 마치 온갖 종자가 모두 땅을 의지하여 나고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므로 만약 땅이 부서지면 저것들도 따라서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여래의 보리 지혜로야 끊을 수 있는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여 나고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므로 만일 무명주지가 끊어지면 여래의 지혜로 끊을 수 있는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법도 모두 따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번뇌와 상번뇌(上煩惱)가 끊어지면 여래께서 얻으신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온갖 법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고, 온갖 지견(知見)이 온갖 허물을 여의고 온갖 공덕을 얻으며, 법의 왕이신 법주(法主)께서 자재함을 얻어 온갖 법에 자재한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여래 · 응(應) · 등정각(等正覺)께서 사자후(師子吼)를 하시기를, '나의 나는 일이 이제 끝났고, 범행(梵行)이 이미 이루어졌고, 할 일을 이미 해 마쳤고, 다음 생의 몸(後有)을 받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사자후로 올바른 이치를 의지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처음 원초적인 생각이 미세한 단계에서 점점 거칠어지는 파생적인 생각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를 〈기신론〉에서는 세 가지 미세한 단계와 여섯 가지 거친 단계인 3세(三細) 6추(六麤)의 9상차제(九相次第)로 설명하고 있다. 상응이란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대상인 객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경우를 말하고, '불상응' 이란 주객의 나뉨이 없는 본래 깨닫지 못한 무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 불상응을 무명주지라 하였다. 또한 이 무명주지가 마치 대지가 온갖 식물의 종자를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깬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상번뇌가 무명주지에 의해 일어나 점점 커지게 된다 하였다. 이 무명주지는 오직 여래의 지혜만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무명이 깨달음을 등지고 진로(塵勞) 합해진 최초의 원초적인 상태다. 중생의 생사가 무명에서 시작된다고 12인연설에서 밝히고 있다.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진여(眞如)가 생멸로 더불어 화합하는 최초의 상태를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 한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설명할 때 비일비이(非一非異)이라는 말을 쓴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다. 곧잘 물과 파도의 예를 들어 비유해 설명한다. 호수나 바다의 수면이 바람이 없으면 물결이 일지 않아 고요하다. 이 상태가 불생멸인 진여의 상태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수면에 물결이 일어난다. 파도가 생긴다. 이 물과 파도가 고요하다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동정(動靜)으로 보면 달라졌으니 똑같은 상태 하나가 아니다(非一). 그러나 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다.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다(非異). 이 비일비이(非一非異)가 아뢰야식 본식(本識)으로 진여가 움직여 생각이 움직여 번뇌가 되는 원초적인 시초다. 이것을 무명주지라 하는 것이다.

아뢰야식을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이라 한다. 진과 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진(眞)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고 망(妄)은 생멸이다. 망이 없어지고 진(眞)만 남은 것이 각(覺)이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깨달음(覺)을 정의하여 '심체이념(心體離念)' 이라 하였다. '마음 자체에 망념(번뇌)이 떠나갔다' 는 뜻이다. 불교의 수행이 망(妄)을 없애 진(眞)에 돌아가는 것이라 하여 망궁진로설(妄窮眞露說)이 나왔으며 일반적인 말로 복귀설(復歸說)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번뇌는 미세하고 미세하여 불상응이다. 이때는 움직이는 기미가 생겼을 뿐 주객이 아직 미분(未分)이다. 주관 쪽이 생기고 객관 쪽이 생기면 상응(相應)이 된다. 불상응(不相應)은 미세하고 미세한 것이지만 상응은 미세하지만 거칠게 동력이 조금씩 거세지는 상태다. 이것이 원초적인 생각이 파생적인 생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상응과 불상응의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意·念 단련해 깨닫는 것이 염불·참선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은 싸띠 수행이기 때문에 염(念)을 싸띠라는 의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불에서의 '염(念)' 은 싸띠(sati)인 것입니다. 싸띠는 인도 팔리어입니다.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 하는 마음의 기능이 바로 '싸띠' 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견문각지하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마음[citta, 心]은 대체로 4가지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요소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 대상을 인지하고 반영하는 의[意, manas, 認識, mind-mirror]입니다. 이 의(意)의 기능은 6감의 모든 상을 모두 마음속에 맺히게 한다고 해서 '마음거울'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싸띠[sati, 念]입니다. 이 싸띠는 자각(自覺) · 주의집중 · 알아차림 · 마음챙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집중' 이 가장 알맞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띠의 역할 속에는 집중과 관찰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관(止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띠는 마음을 구성하는 인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본래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한 싸띠는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마음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이지만 한편으론 마음의 작용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 점 의식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세 번째 요소는 마음 거울에 맺힌 상[識, vinnana, 反影, image]입니다. 감각기관이 대상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감각기관이 접촉한 이미지가 반드시 마음에 그 상(相)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네 번째 요소는 영겁의 윤회 삶 속에서 기억된 훈습의 종자식들이 저장된 기억정보[anussati, 記憶, memory]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구성하는 의(意)와 싸띠(sati) 그리고 식(識)과 기억(記憶)의 네 가지 기본요소들에 의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마음은 다차원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거울[manas.意]인 '의(意)' 와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싸띠(sati, 念)' 는 마음의 본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진여본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意) · 념(念)을 합해서 '앎' 이라고 하고 또는 '봄'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맺힌 상[識]과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정보들은 모두가 '허상' 이고 '환' 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허상 · 망상을 좇아 집착하며 희로애락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이 의(意)와 념(念, sati)의 기능인 '앎' 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의(意)는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할 때 그 정보가 마음에 입력되어 마음 표면에 상을 맺게 하는 기능으로써 인식대상 전부 즉 6감의 모든 상을 모두 마음속에 맺습니다.

그리고 싸띠(sati, 念)는 마음작용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意)와 싸띠인 염(念)을 단련시켜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하여 깨달음의 증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이나 참선수행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⑱ 사유 중지의 경 ①

바르게 멈추고 지켜보라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수행승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에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에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착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착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건전하다' 는 말은 현상적 의미로 쓰일 때와 사실적 의미로 쓸 때가 있다. 현상적 의미로 본다면 '건전하다' 는 것은 법규나 예의에 의한 일상사의 보편적인 일들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지키고 있을 때를 말한다. 누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이 건전한 의식 활동이고 무엇이 불건전한 의식 활동인가를 알고, 현상 안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적 의미에 집중해서 보면 일상사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되고, 언어나 예의, 지식이 개입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때에 '건전하다' 는 것과 '불건전하다' 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깊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유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사유' 라기보다는 지식이나 법규에 대한 이해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은 왜 같은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무엇을 하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수반한다. 둘 다 '나' 라는 관념이 생긴, 그때의 조건으로 나누어지는 분별심이지 진리에 대한 구분 없는 지혜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 무엇이 올바른 수행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을 조금 잘못하고 나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고쳐지지 않고 수레바퀴가 자국을 남기듯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했겠지만 지금도 수행자들은 '무엇이 올바른 수행인가' 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탐구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 바로 '멈추고 지켜보는' 것이다. 어릴 때, 햇빛을 이용해 돋보기를 종이 위에 대고 불을 일으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 잠시 멈추어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곧 맞추어진 초점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나고 곧 종이에 불이 붙는다. 특히 태양이 가까운 한여름에 불꽃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으로 알 것이다. 이것처럼 불을 일으키는 것은 적당한 때에 빛과 돋보기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기다리면 될 뿐이지, 공연히 내가 불을 붙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 생각으로 엉뚱하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불이 붙는 일이 더디고 힘들어질 뿐이다. 내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님을 간파하면 된다.

수행은 돋보기로 불을 일으키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 라는 것으로 무엇을 알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고로움만 있을 뿐이지 영원히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사실적 의미의 건전한 정신활동이다. 멈추고 지켜본다. 한자로 말하면 지관(止觀)이다. 멈추는 것은 선정이고, 관찰한다는 것은 지혜이다. 변화하는 것에는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변하는 것을 잡고 알아보려 하지만, 찰나에 다시 변해버리는 것이니 알았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혜는 스스로에 대한 앎,
스스로의 다른 이름이지 무엇을 알아낸 앎이 아니네.
지혜를 무엇을 알아내는 것이라 착각한다면,
지혜는 영원히 알 수 없네.
다만, 모양과 소리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그 앎,
항상 지켜보면 지혜는 절로 샘솟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2년 학술세미나

근대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Ⅱ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고 흔적을 남긴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근대제주불교역사 정립과 실존인물의 참 업적 발굴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근대사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일 시 | 2022년 05월 21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장 소 |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연락처 | 010-9185-1004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